

“배우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공연장 꿈꾸요

‘북카페’ 쉼터에서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도 됩니다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 문연 ‘극단 예린 소극장’

50석 규모 객석에 휴게 공간 4~7일 개관 공연 ‘광대의 꿈, 소풍’ 무대 올려

갤러리들이 즐비한 광주 예술의 거리에 소극장이 한 곳 있다. 공동예술극장이다. 오랫동안 예술의 거리 터줏대감이었던 극단 토박이의 민들레 소극장은 지난해 동명동으로 옮겨갔다. 그 빈자리를 지난해 말 새롭게 문을 연 ‘극단 예린 소극장’이 채운다. 원불교 맞은 편 예향갤러리 옆 골목 지하에 오픈한 극단 예린 소극장은 객석 수 50석 작은 공간이지만 쾌적한 환경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소극장 대부분이 열악한 여건으로 공연을 기다리며 차 한 잔 마실 수 없는 공간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작지만 카페를 마련,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한 게 인상적이다.

극장을 오픈한 이는 올해로 연극 인생 37년을 맞는 극단 예린 대표 윤여승(56)씨다. 윤씨가 극장을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86년 즈음 연극을 볼 수 있는 카페 ‘블랙 코미디’를, 1990년에는 양동 시장 인근에 CL 아트홀을 열었지만 모두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윤 대표는 26년만에 다시 극장을 열면서 ‘배우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공연장’을 꿈꾼다. 우선 객석 입구에 작은 북카페를 마련해 공연 관람과 관계 없이 커피와 각종 차를 누구나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했다.

“한번 두번 오게 되면 그 공간이 편안해지면서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연극을 상연하는 극장이지만 누구나 쉬 수 있는 쉼터 만들고 싶어요. 지나가다 극장 구경 하러 오셔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꼭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린 소극장은 배우도 관객도 모두 주인이 되는 공간입니다.” 예린 소극장은 대관과 함께 자체 극단 ‘예린’을 통한 정기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광주예술의 거리에 문을 연 ‘극단 예린 소극장’ 개관 기념작 ‘광대의 꿈, 소풍’ 연습 중 포즈를 취한 배우 박규상·한중근·윤여승 대표(사진 왼쪽부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극단 예린 소극장 북카페.

“장기 공연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좋은 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연기자들이 성숙해져요. 웬만큼 작품성이 담보가 되면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는 것도 훨씬 수월하죠. 마음으로는 1년 365일 불 꺼지지 않는 극장을 만들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공연에 도전하고 싶어요. 또 젊은 배우들이 새로운 걸 꾸꾸고 도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979년 서울에서 극단 예연의 ‘두령바위’에 배우로 참여하면서 연극 인생을 시작한 그는 광주시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했고 1991년 극단 코스모스를 만들었다.

“20대 젊은 시절엔 항상 마음 속에 있는 걸 쏟아내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았던 감정을 연극을 통해서 조금은 해결할 수 있었죠. 연극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배역 속에서 내가 새롭게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연극은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즈음 전주예고 교사로 있으면서 극단 ‘예린’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100여편의 작품을 연출했다.

하반기 정기 공연으로 진행할 2인극을 집필중인 윤대표는 앞으로 창작극과 함께

명작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작품 등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20대 때 극장을 찾던 이들이 40~50대에 찾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극은 일생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장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4일부터 7일(4·6일 오후 7시 30분, 3·7일 오후 4시·7시30분)까지 열리는 개관 공연은 2인극 ‘광대의 꿈, 소풍’이다.

윤대표가 직접 희곡을 쓴 작품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은 현실 속에 묻히는 삶을 거부하고, 평생 연극 무대에서 살아온 노배우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묻고 있다.

일생을 바쳐 지켜온 작은 소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지나온 삶을 더듬으며 추억에 잠긴 노배우. 그 앞에 잊고 있던 후배가 찾아온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연극에 빠져들었던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웃고, 울고, 괴로워하며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광주 대표 배우 박규상·김중근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223-26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스위스 전통 민속음악 광주 온다

광주엔시안요텔클럽 연주회 7일 광주교대 풍향문화원 스위스 민속예술단 초청 공연

스위스 전통 민속음악이 광주를 찾아온다. 광주엔시안요텔클럽이 창립 39주년 기념 제26회 정기연주회에 스위스 민속예술단 ‘East meet West-Brugge baue’(사진)를 초청,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합동 공연을 연다. 7일 오후 5시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 하정음악홀.

‘East meet West-Brugge baue’는 민속무용과 알프스 민속악기 알프혼, 외르켈리 연주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 중 왈티 지그리스(Walti Sigrist)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알프혼(길이 14m)연주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알프혼 합주를 시작으로

로 광주엔시안요텔클럽 회원들이 참여한 여성듀엣 ‘감사’, 여성중창 ‘기쁨’, 미국 민속음악인 ‘블루그래스’ 연주팀 ‘포키벤드’의 ‘I love to yodel’과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려준다. 이어 ‘창고 쥐몰이’ 외르켈리 연주곡 등 스위스 민속예술단 공연이 펼쳐진다. 그밖에 여성솔로 ‘신혼여행’, 남성솔로 ‘즐거운 여행’, 카우벨 ‘눈의 왈츠’·‘Long long ago’ 연주를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에텔바이스’와 ‘즐거운 산행길’을 관객과 함께 부르며 공연을 마친다.

1977년 창립한 광주엔시안요텔클럽은 매년 30여 차례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쳐오며 오케스트라 자문 확대에 힘쓰고 있다. 광주총장축제 ‘창작예술경연대회’ 동상, 강원도 흥천 ‘제2회 전국악기 동아리경연대회’ 은상 등을 수상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3611-47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형철 시인 ‘마음에 먹줄 하나 그어놓고’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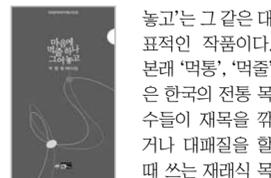
박형철 시인이 등단 50년 만에 다섯 번째 시집 ‘마음에 먹줄 하나 그어놓고’(한림출판)를 펴냈다.

계간 ‘문학춘추’ 발행인이기도 한 박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원초적인 그리움과 고독,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향수에 초점을 맞춘다. 일상의 소재를 서정적인 어조로 풀어낸 작품들은 오랜 시적 이력에서 말해줄듯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가을은/ 깊어갈수록 사람이 그림다// 나무가 잎들 떨구고/ 사람들은 생각을 내팽개치는/ 가을/ 문득 길길 없는 길손되어/ 잎 떨근 나무와 함께 걷고 싶다”

‘가을바’에서 시적 화자는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가을 나무에 투영한다. 황혼에 다다른 인생을 ‘잎 떨근 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그러나 시인은 감성에만 호소하지 않고 성찰이라는 묵직한 주제로 펼쳐낸다. 표제시 ‘마음에 먹줄 하나 그어



놓고’는 그 같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본래 ‘먹줄’, ‘먹줄’은 한국의 전통 목수들이 재목을 깎거나 대패질을 할 때 쓰는 재래식 목공도구를 일컫는다.

다. 시에서는 모난 데를 다듬는 도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속적 이해관계를 떠나 올바른 삶을 희구하는 의미로 다가온다. 발문을 쓴 중앙대 이명재 명예교수는 “저자의 시문학 특성은 인생을 관조, 성찰하는 요소가 짙으며 삶의 고독감과 상실감을 이겨내는 지혜가 깃들어 있다”고 평한다. 한편 박 시인은 1966년 ‘새교실’과 1984년 ‘월간문학’, ‘시와 시론’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광주문인협회 회장과 국제펜클럽 전남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림문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6일 귀일민들레 요양원서 496번째 공연

24번째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고 있는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사진·단장 김효중)이 6일 귀일민들레 요양원(남구 봉선동)을 찾아가 496번째 봉사공연을 펼친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을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은 오후 2시부터 카네이션 달아주기, 춤, 노래, 마술, 코미디 등 흥겨운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퓨전난타를 시작으로 가수 이애자, 성민하, 김은정, 최진필 등이 출연해 ‘배피워라’, ‘첫번째’, ‘사랑아’, ‘안동역에서’ 등을 들려준다. 또

벨리댄스(이현우), ‘신비한 마술의 세계’(박성용), 코미디 쇼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노래봉사단은 지난 1993년 각종 가요제나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 교사, 회사원 등 90여명으로 결성됐다. 현재 9개 부문 회원 130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달 한번 복지시설을 방문해 공연과 함께 위문품 전달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억3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문의 010-2684-60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술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술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술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술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술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라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